영화시극 새 장르 시도한 불교 독립영화

〈詩劇〉

구담 스님 새 독립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

12월 1일 법룡사서 제작발표회 개최
구담 스님 감독 12월 27일 크랭크 인

2022년 3월 시사회 개최 · 출품 등 예정
연극무대 영화로 옮긴 영화詩劇 새 장르
영화적 통념 관습 벗어난 작가주의 영화
독립영화 지평 넓히는 실험 · 확장 기대
"범패 · 불전사물 등 불교 전통 공연예술 현대영상으로 옮기는 작업 초석될 수도"



12월 1일 열린 제작발표회 현장.



독립영화를 만들어온 구담 스님이 다섯 번째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 제작에 들어갔다. 사진은 12월 1일 법룡사(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열린 리허설 장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허공을 나는 재주가 없는 다음에야 절벽에서의 한 걸음은 죽음뿐일 테지. 하지만 어쩌랴, 뛰어들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구담 스님이 자신의 다섯 번째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의 감독 겸 제작자인 구담 스님은 12월 1일 법룡사(전국비구니회관) 내 메따공연장에서 개최한 리허설 및 제작발표회에서 12월 27일 첫 촬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무대 위의 연극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시극(詩劇)이다. 시극문학박사인 이지아 문학평론가에 의하면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시극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촬영은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12월 27일 첫 촬영을 시작으로 총 5일(5차례) 동안 진행된다. 약 3개월의 후반작업(편집 등)을 거친 후 2022년 3월에 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런닝타임은 약 30분이다.

'홀로 빛나는 어둠'은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결심한 걸그룹 멤버 수인이 우연히 만난 행자의 따뜻한 위로와 노승의 가르침을 통해 새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기존의 영화적 통념과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적 실험을 모색하는 작가주의적 영화다.

구담 스님에 의하면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형식적으로는 공연예술인 연극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이면서, 내용적으로는 시극(詩劇)이라는 시적 정서의 전반적인 극적 구성을 구현한다. 기존 무대 시극이 대사와 지문의 운문성, 즉 운율의 시적 감흥을 위주로 한 서사 공연 위주였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영화적 표현 방식의 장점을 살려 작품 전체가 유기적인 운율의 통일성에 무게를 두었다. 관객이 접근 가능한 일상적 이해와 공감으로 표현되는 영화시극은 보편적 서정으로 더 가까워진다.

촬영현장에서는 무대 미술의 상징을 단순화하면서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의 앵글을 시나리오의 구현에 맞게 구성하여, 기존 영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공연의 묘미를 살려, 관객에게 일종의 관극 경험을 선사한다.

전체적으로 시적 정서와 긴장감을 살리기 위해 배우의 움직임과 대사의 침묵, 음악성의 이미지, 무대 공간의 깊이감 등은 영화 시극으로서의 시적정신을 내재화한다. 이러한 시적 드라마 구조를 띤 연극적 형식의 영화는 독립영화의 지평을 넓히는 실험이면서 무대 시극의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극의 영상화 작업은 주로 연극계에서 이루어져왔지만 이는 고정된 카메라의 지속적인 촬영으로, 무대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정서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영화적 관점과 구성으로 연극을 스크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에 더해 작품의 내용을 시극의 구성 요소인 대사, 지문, 인물의 캐릭터와 관계의 갈등, 미술, 음악, 움직임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시적 정서의 서사로 연결되는 방향성에 역점을 두었다.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체영상의 필요성 확대 관점을 인식하여 무대예술인 연극을 영상예술로 옮기기 위한 모색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전통연희 예술의 원형이자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불교예술의 현대적 창작과 해석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교의 범패나 불전사물, 승무 등 불교 전통 공연예술을 이 시대의 영상언어로 옮기는 작업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극문학박사인 이지아 시인 · 문학평론가는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시극 영화이다. 구담 스님은 빠르고 복잡하고 불안한 시대에 영화의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 예술의 새로운 장르 탄생은 새로운 세계를 펼침과 동시에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축복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영화는 시극의 특징을 영화화하는 데 도전하고 성공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수인, 행자, 노승의 극적인 관계설정과 시적인 대사, 무용, 음악과 미술의 효과를 아름답게 연출한 장면들이 하나의 꽃처럼 눈부시게 피어있다"고 평했다.

구담 스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불교영상 포교의 필요성에 따른 전통 불교예술의 현대적 창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과거 전통놀이의 새로운 발견은 언어와 세대를 초월한 현대적 수용과 발전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역사의 그늘에 묻힌 불교예술의 재인식에 있어 전통의 보존을 넘어 재해석과 창작이라는 화두를 가늠하게 한다. 특히 대중매체인 영화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볼 때 이번 '홀로 빛나는 어둠'이 추구하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야말로 그 실험정신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영화의 원만한 회향으로 현대 불교영화의 새로운 창작에 도전하는 이들이 발돋움하기를 바라고, 나아가 불교예술의 현대적 해석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이어지기를 발원한다"고 이번 영화의 의미를 밝혔다.

영화 '홀로 빛나는 어둠'에서 수인 역은 2018년 단편영화 '옥좀밥', 2021 연극 '러브 이즈 타이밍' 외 다수 출연했던 김련경이 맡았다. 행자 역은 2021 창작극 '페이드아웃' 등에 출현한 김도이가, 노승 역은 행복선원 주지 연암 스님이 열연한다.

수인 역의 김련경은 "대사가 많지 않아서 관객들이 보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없이 표현하는 표정과 움직임으로도 관객들과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기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행자 역의 김도이는 "저도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며 "영화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시라는 문학으로 대사를 풀기도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와 닿는 대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구담 스님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기획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금까지 총 4편의 독립 단편영화를 연출하고 제작했다.

첫 작품인 '두 번째 화살(2018)'은 삶과 죽음의 성찰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으며, 두 번째 작품인 '불타는 다이어트(2019)'는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잠재된 욕망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 번째 작품 '크리스마스의 제사(2020)'는 고전 삼국유사 내용을 모티브로 한 억눌린 자아의식에 대한 내적성찰을 그리고 있으며, 네 번째 작품인 '오월의 만다라(2021)'에서는 광주 5.18 민주항쟁과 불교를 배경으로, 출가수행자의 사회적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불교적 관점에서 영화 작업을 해왔다.

이번 다섯 번째 독립 단편영화인 '홀로 빛나는 어둠'에서는 지금까지의 영화 작업의 의미를 성찰하면서, 영화라는 매체 속성의 탐구와 활용으로 무대예술인 연극의 유구함과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했다.

'두 번째 화살(2018)'과 '불타는 다이어트(2019)'는 2020년 5월 국가정책방송(K-TV) 독립영화 예술부분 선정, 방영됐으며, '크리스마스의 제사(2020)'는 2020년 인도 타고르 국제영화제(TIFF), FILMS OF THE MONTH - APRIL, OUTSTANDING ACHIEVEMENT AWARD, 2020 CANADA CONTINENTAL FILM AWARD - Outstanding Achievement Director에 선정됐다.

'오월의 만다라(2021)'는 2021년 제1회 국제불교영화제와 2021년 제10회 광주독립영화제에서 초청작으로 상영됐다. (문의 010-7299-0522, 프로듀서 조혜영)

박재완 기자

제31회 불교미술대전 대상



가람석공예

각종 석탑·석등·건축가공
납골묘 제작시공
조형물 특수조각
(정성과 혼을 담아)

대표 김용암
(문화재보수 기능사 제2265호)

전북 익산시 성당면 회선길11(대선리)
공방 063)861-6191 FAX 063)861-6193 H.P 010-3003-7611
E-mail 6836646@naver.com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모집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선밀종은 아래와 같이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사암등록 및 안내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총무원 T. 053)854-0803 F. 053)854-0804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홈페이지 www.sumiljong.or.kr